

아랍 민주화운동 분석과 전망*

모하마드 엘-사예드 셀림

쿠웨이트대 정치학 교수

〈논문요약〉

2010년 말을 휩쓸었던 아랍 민주화운동은 독재주의를 청산하고 실질적 발전, 민주주의, 사회 정의를 특징으로 하는 체제를 통해 새로운 아랍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인류의 투쟁을 보여주었던 주요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본 논문은 첫째, 아랍 민주화운동의 주요 원인을 개발과 정의의 부족, 그리고 외세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라고 본다. 또한, 이것이 외부로부터 일으켜진 것이라기보다는 내부로부터 발생한 자생적 운동의 성격을 지녔다고 주장한다. 둘째, 본 논문은 아랍 민주화 물결의 특징으로서, 포퓰리스트 운동 성격, 청년세대 리더십, 불명확한 지도부, 평화적/ 비평화적 특징들, 그리고 비-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꼽고자 한다. 다음으로, 아랍 민주화의 향후 전망으로 아랍 국가들에서 정치 회복, 정치적 권위주의 종식, 새로운 발전 모델 수립, 전투적 이슬람주의의 퇴조, 종교국가 건설의 낮은 가능성, 범 아랍주의의 부활, 아랍-이스라엘 균형의 극적 변화 가능성, 아랍 세계에서 서구 민주주의 컨소시엄 종말,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 감소 등을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아랍 세계에서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오랫동안 실질적인 국내 문제들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온 아랍-이스라엘 분쟁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 논문은 서울 민주주의 포럼(2011. 11. 7-10.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주요어: 아랍 민주화운동, 전투적 이슬람주의, 범 아랍주의, 대한민국, 서울 개발 컨센서스, 서구 민주주의의 컨소시엄

1. 서론

2010년 말을 휩쓸었던 아랍 민주화운동은 독재주의를 청산하고 실질적 발전, 민주주의, 사회 정의를 특징으로 하는 체제를 통해 새로운 아랍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인류의 투쟁을 보여주었던 주요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아랍 민주화운동을 유럽과 글로벌 정치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1989년도의 베를린 장벽 붕괴에 비견했다(<http://www.thehindu.com/news/international/article2103236.e>). 리차드 머피(Richard Murphy)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아랍 민주화운동을 통해 “아랍 역사의 새 장”이 열렸다고 말했다.¹⁾ 또한 버나드 루이스(Bernard Lewis)와 같은 일부 아시아 연구자들이 널리 주장했던 바와 같이 아랍세계가 민주주의의 불모지가 아니라는 것이 검증되었다. 민주화운동이 탄력을 받는 시기가 지역별로 달라 비록 시기는 늦었을지라도, 아랍 민주화운동은 세계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었던 자유와 정의를 추구하는 인류의 여정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아랍 민주화운동은 대부분의 아랍국가, 특히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일련의 시위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결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가지

1) Richard Murphy, “New Chapter in the Middle East”(<http://www.cfr.org/middle-east/new-chapter-middle-east/p24276>).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독재정부를 실각시키는 운동으로, 2011년 1월 튀니지에서, 2011년 2월 이집트에서, 2011년 9월 리비아에서 발생했다. 두 번째 유형은 정권에 강력하게 도전했으며 독재자의 퇴진으로 이어질 정도의 운동으로 예멘과 시리아에서 주로 일어났다. 세 번째 유형은 정권 퇴진이 아닌 개혁을 촉구하는 온건한 시위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알제리, 모로코, 요르단에서 일어났다. 수단, 레바논, 카타르와 같은 나머지 아랍 국가에서는 특별한 시위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첫 번째 유형의 국가에서 해당 운동은 ‘혁명’으로 발전되어 구 정권의 퇴진 과정이 시작되었으며,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섰다. 다른 유형의 경우, 기존 정권이 종말을 고하고 있음은 명백하나 변화의 범위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민주화운동, 또는 민주화 시위를 3대 범주로 구분했으며, 이 중 일부는 혁명적 변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본 논문은 먼저 아랍 민주화운동의 근원, 주된 특성, 향후 동향 등을 규정한 뒤, 현재의 아랍 민주화 동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2. 아랍 민주화운동의 배경

아랍 민주화운동은 21세기 초반 이집트,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요르단 등의 국가에서 노동자 시위, 좌파 및 이슬람교도 운동, 청소년운동, 블로거 활동 등의 형태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지배계급이 경찰의 힘을 빌어 이를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진압했으므로 이는 민초들의 제한된 시위 활동을 넘어설 수 없었다. 카네기 국제 평화 기금(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은 경찰의 무자비함과 위 운동이 단일 전선을 구축하거나 단결하기에 명백히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2011년 1월 28일 “시위에 참여하는 단체 간 차이점을 감안할 때 이 운동들의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이와 같은 평가결과는 이집트 운동이 타흐리르 광장을 장악하고, 경찰과의 대치에서 승리를 거둬 마침내 무바라크(Mubarak) 대통령의 사임으로 이어졌던 바로 그날 발표되었다(Ottaway & Hamzawy 2011). 이와 같은 평가는 서구의 싱크탱크와 정보기관들이 아랍의 시위가 대대적인 혁명으로 이어질 것을 예측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나 아랍 민주화운동은 극적으로 발흥하였다.²⁾

아랍 민주화운동은 주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 부당성에 대한 저항의 결과였다. 대부분의 아랍 국가에서 빈부격차와 소수의 재계 인사에 의한 정부의 통제는 너무나 명백했고, 더구나 글로벌화, 정보기술, 민주화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정권은 억압적 성격을 보였다. 아랍 국가에서는 공정선거 또는 권력 이양이 드물었다. 또한 이집트와 예멘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아들에게 권력을 세습하여 장기 집권케 했다. 또한 첨단 정보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으나 정치적, 경제적으로 홀대받는 15세에서 30세까지의 신세대가 출현했다. 이와 같은 신세대는 튀니지와 이집트의 민주화운동을 촉발한 주요 세력이었다(Shehata & Wahid 2011).

또한 국가 자원의 손실과 지역 및 세계정세에 영향을 미친 외국 권력에 대한 정권의 의존도도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 아랍이 9/11 이후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간 것과 대부분의 정권이 서구 강대국에 명백히 종속된 것, 이스라엘의 지역 패권을 제지하지 못한 것도 불만 유발 요인이며, 특히 아랍 국가들이 상당히 거만한 태도로 대응하거나 심지어 아랍 국가의 정권을 모욕하기까지 한 이스라엘을 인정했다는 점도 불만을 유발했다.

뿌리깊은 불만을 행동으로 전환시킨 동인은 예기치 않은 형태로 나타

2) 실제로, 이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보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바라크(Mubarak) 정권이 안전하고 안정적이라고 확신했다. 이러한 사실은 정보력 부족을 다시 한번 증명시켜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이다(Muhraeb, "Israel and the Egyptian revolution," <http://www.25yanayer.net/?p=9835>).

났다. 2010년 12월 17일 교육을 잘 받았으나 실직하고 거리 야채 행상으로 일하고 있던 튀니지의 한 젊은이 모하메드 부아지지(Mohamed Bouazizi)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처벌하고 모욕한 지방 여경에 분노해 시위에 나섰다. 시위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번지자 경찰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상실했고, 군은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를 거부했다. 24년간 정권을 잡았던 벤 알리(Ben-Ali) 대통령은 도주했고, 2011년 1월 17일에 정권이 붕괴했다.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이집트도 같은 수순을 밟았다. 2011년 1월 25일 이집트 청년들은 타흐리르 광장에서 정권 반대 시위행진을 벌였다. 정권이 이를 무자비하게 폭력 진압하자 젊은이들의 시위는 이집트 남부 도시지역 전체로 확산됐다. 또한 정권의 효과적 위기 관리 실패, 군부의 시위 진압 거부는 무바라크 대통령의 사임과 정권 붕괴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순식간에 리비아, 바레인, 예멘, 시리아로 확산됐으나, 해당 국가에서는 군부가 정권의 편을 들어 대규모 폭력과 외국 개입을 야기했다. 이와 같은 격변의 영향은 아랍의 다른 국가에서도 느껴졌으나 보다 제한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더 부유하고 부족적인 아랍 국가로 이와 같은 움직임이 확산되자 정권은 사회 지원을 늘리는 것으로 대응했으며, 경찰의 사회 통제를 강화했다.³⁾

3. 아랍 민주화운동의 특성

아랍 민주화운동의 특성은 냉전 종식 이후 동아시아와 동유럽 등 세계

3) 이집트와 튀니지에서 일어난 시위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Hafez 2011; Abdel-Nour 2011; Douh 2011 을 참조.

의 다른 지역에서 나타난 민주화운동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아랍 민주화 운동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포퓰리스트 운동
- 고학력 청년층 주도 운동
- 특정 지도부가 없는 운동
- 평화적 운동
- 비이데올로기적 운동
- 국내 자생적 운동

아랍 운동은 주로 민중에 의해 발생한 포퓰리스트 운동이다. 군부가 주도했던 20세기 후반의 아랍 혁명과는 달리 아랍 민주화운동은 젊은이가 주도하는 민간 운동이다. 아랍 군부는 이와 같은 운동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을 주었다. 튀니지와 이집트의 경우 군이 변화를 촉진한 반면, 리비아, 시리아, 바레인, 예멘에서는 군이 운동을 억제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변화를 시작하고 이행한 것은 민중이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사회의 다양한 집단 중 25세에서 35세 사이의 고학력 청년이 변화의 물결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그간 불법거주지역에서 거주하는 빈곤층, 소외계층이 아랍 혁명을 주도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이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변화의 부담을 떠안은 것은 첨단 정보기술에 익숙한 고학력 청년세대였다. 운동은 완전히 예기치 않은 방향에서 불어와 경찰의 허를 찔렀다. 정보기술은 이와 같은 운동의 발생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이집트에서는 청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우연히도 ‘경찰의 날(Police Day)’이었던 1월 25일에 시위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Al-Sayed Yassin, “The revolutions from the Virtual World to the Real Society,” <http://ksa.daralhayat.com/ksaarticle/236111>).

아랍 민주화운동에는 분명한 지도부나 조직적 틀이 없다. 탄압적 정권을 퇴진시킬 수 있는 주된 힘은 바로 여기서 나왔다. 지도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경찰에 체포되었을 것이고, 시위는 진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상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독재정권의 몰락 이후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을 이끌 주체가 없었던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튀니지와 이집트의 구 정권의 요소가 민주적 변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민주적 변화의 추세와 범위에 대한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민주화운동은 주로 평화적이었다. 대중은 정권에 대한 폭력 사용을 자제했으며, 이들에게 폭력을 사용한 것은 정권이었다. 젊은이들은 평화 시가 행진을 했으나, 경찰의 폭력으로 수백 명의 젊은이가 희생됐고, 이는 시위를 증폭시켰다. 1월 25일과 28일에 정권의 폭력으로 사망자가 발생했고, 정권의 냉담한 태도에 시위가 확산되었다. 튀니지, 이집트, 시리아, 바레인, 예멘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으나, 리비아에서는 시위자들이 폭력을 사용했다. 처음에는 평화적 수단을 사용했으며 정권에 대항할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었으나, 곧 폭력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외부의 선동이었으며, 또한 리비아의 문화적 배경, 사용할 수 있는 폭력의 도구가 있었다는 점 등도 폭력 사용의 원인이 되었다.

아랍의 시위가 대부분 비 이데올로기적이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들은 자유, 사회 정의, 인간의 존엄성을 요구했다. 이슬람주의자,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 등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적 단체가 시위에 참여했으나 주로 특정 이데올로기의 실현이 아닌 더 나은 삶을 갈망하는 청년층이 시위를 주도했다.

마지막으로, 아랍 민주화운동이 자생적 운동이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일부 미국 분석가들은 미국이 조지 부시(George Bush) 대통령이 옹호했던 대중동구상(Greater Middle East)의 실현 조건을 구축하기 위해 아랍의 시위를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윌리엄 엔달(William Engdahl)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바마(Obama) 정권이 무바라크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교하게 연출된 인상을 준 것에 반해, 미국은 사실 이집트 국민에 동조하고 있으며, ‘창조적 파괴’로 일컬어지는 과정을 통해 시리아에서 예멘, 요르단에 이르기까지 다른 국가의 정권 교체에 동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은밀한 정권 교체 전략은 미 국방성, 정보기관, RAND 코퍼레이션(RAND Corporation)과 같은 다양한 싱크탱크가 수십 년간 수립한 것으로, 1968년 5월 프랑스 드골(de Gaulle) 정권의 불안정화로 시작됐다. 이는 동유럽 다수 국가에서 미국이 20여 년 전 동시다발적인 정권 교체를 지원한 이후 최초로 미국이 지지한 정권 교체였다. 이는 필사적인 전략이며, 미국의 국방과 장기적으로는 금융에도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전략이다. 이와 같은 전략이 해당 지역 국민에게, 나아가 전세계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불분명하다.(Engdahl 2011)

한 이집트 분석가도 이와 같은 관점을 밝혔다. 그는 아랍의 시위가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와 조지 소로스(George Soros)를 비롯한 다수의 미국 기관이 주도한 전략의 일환이며, 미 정부의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된 전략은 ‘사이버 반체제 인사’가 ‘창조적 혼돈(Creative Chaos)’의 도입을 통해 아랍 정권을 전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혼돈의 결과 새로운 민주정권이기는 하나 미국에 충성하는 힘이 약한 정권이 수립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집트의 힘이 약화되고, 이스라엘만이 아랍에서 유일하게 힘을 가진 국가가 된다.⁴⁾

이와 같은 관점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아랍의 시위는 대부분 국내에서 발생되었다. 각각 유시첸코(Yushchenko) 대통령과 사카쉬벨리(Sakashveli) 대통령의 취임으로 이어진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의 시위에서와 같이 서구 강대국이 이의 동기를 부여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서구 강대

4) General Hossam과의 인터뷰(*Al-Ahram* 2011/07/01) 중에서.

국은 기존 아랍 정권을 보호하고자 했다. 프랑스와 미국은 시위 이전과 시위가 진행되는 기간 중 벤 알리와 무바라크를 공공연히 지지했다. 벤 알리가 축출되기 2주 전 미 의회는 총 1,400만 달러 상당의 폭동 진압용 도구를 벤 알리에게 판매하는 안을 승인했으며, 프랑스의 사르코지(Sarkozy) 대통령은 공공연히 벤 알리를 지지했다. 무바라크에 대항하는 1월 25일 혁명이 발발하기 며칠 전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은 무바라크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는 발언을 했다. 튀니지와 이집트의 정권이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명해지자 서구 강대국은 입장을 바꿨다. 이는 해당 정권들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서구 강대국의 이해에 부합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유럽지중해 파트너십(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대중동구상과 같은 서구가 지원하는 민주화 구상이 ‘민주주의를 위한 달러(Dollars for Democracy)’ 전략을 통해 민간사회 기관을 부패시킴으로써 오히려 민주화를 지연시켰다는 것이 밝혀졌다.

리비아와 예멘과 같은 사례에서 시위 발생 후 정세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외국 세력이 개입했다. 리비아의 경우, UN 안보리(UN Security Council)가 리비아 비행 금지 구역(No Fly Zone over Libya)을 지정하는 결의안 1973(Resolution 1973)을 발표했으며, 예멘에서는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가 살레(Saleh) 대통령의 안전한 퇴임을 중재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입은 대중 운동 발생의 원인이 아니었다. 외국 세력은 시위 운동의 성공보다는 자국의 이해를 위해 개입하고자 했으며,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성공적인 아랍 혁명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해 왔다. 이집트 군사위원회(Military Council in Egypt)는 외세로 인해 이집트 혁명이 더욱 혼란스럽고 폭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어떤 국가가 이와 같은 시도를 하고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4. 아랍 민주화운동의 향후 동향

아랍 민주화운동의 최종 결과, 모든 아랍 국가가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 이로 인해 촉발되는 내부적 변혁의 범위를 속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특히 아랍 국가들이 독립 이후 진정한 고유의 발전을 이루는데 실패하거나 부패한 군부 독재 정권 또는 부족 지배계급의 통치로 인해 퇴보하였는지 여부, 서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대부분의 아랍 정권이 서구에 전권을 위임하게 됨으로써 퇴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또한 이와 같은 추세를 강화하기 위한 서구 세력과 집권층 간의 동맹관계는 아랍 국가들의 특징이다. 이를 통해 왜 서구 세력이 아랍의 민주혁명을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며, 서구의 이해에 부합할 경우에만 혁명을 지원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NATO가 리비아에는 개입하면서 시리아에는 관여하지 않는 이유도 이를 통해 설명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급진적 민주혁명을 복잡하게 만든다. 기존 지배계층이 경제적, 정치적 권력 구조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으며, 특히 혁명세력은 정권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배계층이 행사하는 권력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권력에 가깝다. 기존 지배계층은 기득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구 정권을 회복하거나 최소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미 반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감히 향후 시나리오를 예측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지만 그래도 몇 가지 동향을 파악할 수는 있다. 향후 다양한 유형의 아랍 정치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자유, 민주주의, 외국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이 그 특징이 될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는 확실하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정치적 동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1) 아랍 국가의 정치 회복과 새로운 개발 모델

현대 아랍 정치의 주된 특징은 정치 자체의 종말이었다. 이는 국민이

정치 프로세스에서 소외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때의 정치 프로세스는 부패한 지배계층의 독점이었다. 지배계층은 늘 경제개혁이 정치개혁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경제개혁이 국가 자산 매각을 위한 허울 좋은 핑계였으므로 경제개혁조차 실현되지 않았다. 민주화운동 이후 국민이 정치 프로세스의 핵심적인 주체로 떠올랐다. 이제는 젊은 신세대가 정치에 참여한다. 정치에 대해 냉담했던 살라피 근본주의자들조차 정당을 조직해 정치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튀니지와 이집트에는 현재 새로운 정당과 연합이 생겨났으며, 민중이 다양한 형태로 민주화 프로세스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최근 이집트 대학 중 최초로 교수진의 직접 투표를 통해 카이로 대학(Cairo University) 총장이 선출됐다.

혹자는 아랍의 전통적 권위주의가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절대적 지도자의 시대는 끝났으며,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깨닫고 있다. 그러나 아랍의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건설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전제 정치를 해체하고 사회에 민주주의적 기준을 정착시키는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특히 극심한 경제위기와 국가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작업을 해내는 것은 더욱 오래 걸릴 수 있다. 아랍의 정치적 문화는 이미 민주주의적 기준에 맞춰 조정되고 있으나, 대중이 민주주의의 이점을 체감하게 되면서 향후 오랜 기간 동안 이와 같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민주화의 물결은 또한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새로운 정권이 추구하는 경제개발 모델에 영향을 주었다. 이 모델들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세계은행(World Bank)이 제시한 구조조정(Structural Adjustment) 패키지와 유사하다. 이 모델들은 공공 부문 매각을 포함한 민영화,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사회 보조금의 폐지 등을 골자로 구축됐다. 이 패키지를 도입할 경우 해외 경제원조의 전제조건이었던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권위주의 정권과 긴밀한 동맹관계에 있으며 특혜를 받는 자본주의 과두제 집권층에게 국부가 집중되고, 외국 독점세력에게 국부가 넘

어간다는 것을 인식한 이집트와 튀니지는 해당 패키지의 도입 속도를 늦추었다. 그리고 경제성장뿐 아니라 사회 정의 및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에 초점을 둔 균형적 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2) 전투적 이슬람주의 쇠퇴와 아랍 종교국가화 가능성 감소

전통적으로 이슬람 투쟁 운동은 아랍 독재정권들의 탄압을 받았다. 해당 정권들은 또한 자신들의 억압적 통치를 대체할 만한 것은 전투적 이슬람주의 운동밖에 없다는 것을 서구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이 운동을 이용했다. 아랍 민주화운동을 통해 새로운 정권이 이슬람 운동의 새로운 경로를 구축했으며, 투쟁 운동 및 비투쟁 운동 모두 정치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슬람 투쟁 운동이 새로운 민주정치에 통합되고 권력 공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폭력을 사용할 모든 동기가 사라졌다. 현재 이집트에서는 1981년 사다트(Sadat) 암살에 참여했던 투쟁 운동가들조차 정치적 수단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것을 강조하는 특정 플랫폼에 맞춰 정당을 조직하고 있다.

전투적 이슬람주의의 쇠퇴는 자연히 중도 이슬람주의의 발현과 확산으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아랍 국가에서 정책 결정에 정치적 이슬람주의가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미 아랍의 ‘팍스 이슬라미카(Pax Islamica, 아랍 평화주의)’가 대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는 과장된 것일 수 있으나, 일종의 경향을 반영한다. 즉 이슬람주의자들의 정치적 의제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주도할 가능성은 낮으며, 정권의 억압이 부재한 상황에서 희생자로서의 이슬람주의자들의 이미지는 축소되고 이집트 국민의 의제에 부합하는 실용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도전에 직면해야 한다. 또한 이들의 정치적 경험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권력 정치의 현실에 맞닥뜨려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이집트의 1월 25일 혁명 이후 무슬림 동포단(Muslim Brotherhood)이 이집트의 터키

모델 도입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모델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으며, 해당 모델이 세속적인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에르도간(Erdogan) 터키 총리가 이들에게 터키 모델이 세속적인 기반을 가졌음을 경고하고 나서자 이들은 터키 모델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중도 이슬람주의자가 출현하고 이들이 새로운 정권의 제도를 강력하게 대표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랍 국가에서 정치적 이슬람교의 인식을 강화하고 나선 ‘이슬람주의’ 정권이 수립될 가능성은 낮다. 이는 이집트, 튀니지, 시리아에서 시민 국가가 깊이 뿌리내렸으며, 세 국가에 강력한 비(非)이슬람주의 및 비(非)무슬림 단체가 존재하는 등 구조적 한계를 비롯해 독자생존이 가능한 시민 사회가 존재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리비아와 예멘과 같은 다른 아랍 국가에서는 사회의 부족적 구조로 인해 이슬람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

3) 범아랍주의의 부활

1967년 중동이 이스라엘에 패하고 난 뒤 아랍 지역 체제와 범아랍주의가 종말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아랍 국가들은 ‘1967년 이스라엘 침략의 흔적을 없애는 데’ 사로잡혔으며, 1970년에 나세르(Nasser)가 사망했다. 또한 석유로 인해 새로이 창출된 부는 아랍 지역 체제의 무질서로 이어져 리더십이 부재한 체제로 보였다. 그러자 범아랍주의가 과거로 사라져 버렸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많아졌다. 푸아드 아자미(Fouad Ajami)는 널리 알려진 논문 「범아랍주의의 종말(the end of pan-Arabism)」에서 이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Ajami 1978).

아랍 민주주의는 이와 같은 주장이 공식적 수준에서만 유효하며, 아랍 민중 운동 수준에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튀니지 ‘혁명’의 영향은 이집트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이집트에서 발생한 사건은 다른 아랍 국가로 빠르게 전파되었다. 이집트에서 내걸은 슬로건인 ‘국민은 정권

퇴진을 원한다’는 예멘과 시리아의 시위 운동에 빠르게 도입됐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시위 운동이 성공하자 아랍에는 새로운 ‘공동 운명체’ 의식이 생겨났으며, 이집트와 수단 간 새로운 형태의 통합 구축 작업은 새로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인지 여부를 예측하기에는 너무 이룰 수 있으나, 민중이 아랍 공동 운명체 의식을 갖게 된 것은 틀림없다.

범아랍주의의 대두는 이와 유사한 아랍의 공식적 지역 체제의 부활과 일치하지 않는다. 해당 체제는 현재 대혼란을 겪고 있다. 아랍연맹(the League of Arab States)은 아랍 국가들을 대표하는 신뢰성 있는 대안 체제가 되지 못했고, 걸프협력회의를 포함한 경쟁 지역 프로젝트들과 비교할 때 이의 영향은 축소되어 왔다. 아랍연맹은 역사상 처음으로 외세에게 회원국인 리비아를 공격할 것을 승인했다. 그러나 아랍 민주화운동이 지속되고 민주주의 제도가 구축될 수 있을 경우, 이는 아랍의 공식적 지역 체제의 점진적 부활로 이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터키의 움직임을 들 수 있다. 터키는 아랍 지역 체제의 주요국과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Moursi 2011).

4) 아랍-이스라엘 균형의 변화

우리는 아랍-이스라엘 수준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챌 수 있다. 이집트 “혁명”으로 인해 이란, 시리아, 하마스에 대한 무바라크와 이스라엘 간 전략적 양해가 사라졌다. 무바라크는 미국의 양해하에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긴밀히 협력해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 주로 하마스를 진압했으며, 가자지구 포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무바라크는 글로벌 시장 가격 및 자국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이스라엘에 이집트 천연가스를 판매했다. 그는 아들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미국-이스라엘의 도움을 원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실망한 이유, 무바라크 축

출을 위해 미 시온주의자들이 로비한 이유를 말해준다. 일부 이스라엘 고위 지도자들은 미 시온주의자들을 ‘전략적 자산’이라고 일컬었다(Heilbrunn 2011). 이스라엘 학자 야코브 랍킨(Yakov Rabkin)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의 담론이 이집트 위기로 전개되는 과정은 현지 참여의 묵살과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의존하는 태도를 반영한다.”⁵⁾

이스라엘이 무바라크의 부패 정권을 공공연히 지지하고 나서자 이스라엘에 대한 이집트 및 아랍 민중의 거리감은 더욱 커졌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국가 자원을 분열시키고 부패가 지속되도록 부패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무바라크의 통치가 종말을 고하자 이집트가 아랍 현안에 대해 취했던 친 이스라엘 접근법도 힘을 잃었다.⁶⁾ 이집트는 이스라엘과의 평화조약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나, 조약의 호혜성을 더욱 강조하게 될 것이다. 또한 무바라크의 퇴각 이후 이집트 외교부 장관이었던 나빌 알 아라비(Nabil al-Arabi)가 밝혔듯 1978년 캠프 데이비드 구상(Camp David framework)의 변화를 제한할 것이다. 이집트는 무바라크 재임 시절에 그랬듯이 이미 이스라엘의 승인 없이 라파 국경을 개방했다. 전 미 국무차관 머피(Murphy)는 이스라엘은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이집트의 정치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 이는 팔레스타인과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이른바 평화 프로세스의 극심한 정체가 수 년간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⁷⁾ 또한 시리아에서 바트(Al-Ba'ath) 정권의 퇴각이 임박함에 따라 새로운 시리아 정부가 골란 고원 문제를 어느 쪽으로든 거론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시리아-이스라엘 간 골란 고원 평화 합의도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5) Yakov Rabkin, “Israeli in Egypt: Consistency among turmoil”(http://mondoweiss.net/2011/03/israel-in-egypt-consistency-amid-turmoil.html).

6) “The strategic alliance between Egypt and Israel has collapsed” (Ha'aretz 2011/02/14) 참조(http://www.alhadath-yemen.com/news11631.html).

7) Richard Murphy, “New Chapter in the Middle East”(http://www.cfr.org/middle-east/new-chapter-middle-east/p24276).

이스라엘은 미국에 2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지원을 요청해 이와 같은 새로운 국면을 재빨리 활용하고 있다. 2011년 3월 8일 바라크(Barak)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와 같은 조치가 “아랍의 포퓰리스트 운동에 의한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AI-Siyassa 2011/03/09).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랍과의 갈등에 대한 포괄적 해결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랍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아랍평화안(Arab Peace Initiative)이 효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무아셔(Muasher)와 솔라나(Solana)의 “이제는 팔레스타인 해결책을 밀어붙일 때”라는 주장을 이해할 수 있다.⁸⁾

아랍-이스라엘 상황은 또 다른 관점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무바라크가 물러나면서 파타(Fatah)와 하마스 간 차이를 좁힐 수 있게 되었으며, 새로운 단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해 왔으며, 미국도 이에 반대해 왔다. 또한 제3의 팔레스타인 민중봉기가 이미 발현되고 있다. 새로운 민중봉기의 주된 원인으로는 ‘평화 프로세스’의 실패, 서방 은행 등의 식민지화를 부추기는 유럽-미국의 이스라엘 전면 지지, 팔레스타인 당국의 신뢰성 있는 대안 제시 실패, 무엇보다도 곧 권위주의 정권을 몰아내는 데 성공할 튀니지와 이집트의 평화 운동의 영향 등을 꼽을 수 있다.⁹⁾ 파타-하마스 간 화해와 2011년 9월 UN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독립국 지위 인정을 요청하겠다는 마흐무드 아바스(Mahmud Abbas)의 계획은 민중봉기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이다. 민중봉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이자 이스라엘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팔레스

8) Marwan Muasher & Javier Solana, “Push ahead now for a solution in Palestine” (<http://www.ft.com/cms/s/0/5f4c4c68-4a87-11e0-82ab-00144feab49a.html>).

9) Amira Hass, “Egypt proved to Palestinians that revolution has a point”(http://www.haaretz.com/print-edition/features/egypt-proved-to-palestinians-that-revolution-has-a-point-1.350749); Abdaljawad Hamayel, “The resurgence of Palestine”(http://www.maannews.net/eng/ViewDetails.aspx?ID=369700).

타인 당국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민중봉기는 1987년에 있었던 봉기와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아랍에서 진정한 민주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은 주된 상징적 홍보 카드 중 하나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이스라엘은 중동의 유일한 민주국가였으며 따라서 아랍 국가들에 비해 독재주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자신을 홍보해왔다.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아랍 국가들의 민주화가 아랍-이스라엘 분쟁의 주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줄곧 주장해 왔음에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랍의 민주화운동에 불쾌감을 나타내는 것은 부분적으로 위와 같은 이유에 기인한다.

5) 아랍에서 서구 민주주의 컨소시엄의 종말과 미국의 영향 축소

2004년 2월 미국은 대중동 파트너십(Greater Middle East Partnership)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대중동 프로젝트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터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을 포함한다. 미국이 지원하는 이 새로운 프로젝트는 ‘대’ 중동지역에 3대 주요 부문과 관련된 개혁을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대 주요 부문은 민주주의와 좋은 거버넌스의 촉진, 지식사회 건설, 경제 기회 확대를 말한다. 첫 번째 부문은 자유 선거, 의회 교육, 독립적 미디어, 반 부패 노력, 시민 사회를 위한 개혁을 의미한다. 지식사회와 관련해서는 특히 문해와 관련된 기본 교육 구상, 교육 개혁, 디지털 및 비즈니스 교육 구상 등에 중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경제 기회 확대와 관련해서는 성장 구상을 위한 금융의 중요성, 재정 탁월성을 위한 파트너십, 무역 구상 등에 중점을 두었다. 대중동 프로젝트는 이 제안들을 이행하기 위해 ‘대중동 파이낸스 코퍼레이션(Greater Middle East Finance Corporation)’ 및 ‘대중동 개발은행(Greater Middle East Development Bank)’과 같은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대중동 프로젝트는 G8 국가들이 제안된 개혁의 이행 및 해당 기관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2004년에는 아랍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 컨소시엄이 구축됐다. 대아랍 프로젝트의 출범 이후 독일은 2004년에 ‘확대중동구상(Wider Middle East Initiative)’이라는 아랍 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후에 프랑스-독일 공동구상으로 발전됐다. 이 제안은 미국이 ‘대 중동 파트너십’을 발표한 후에 나온 것으로, 명칭도 거의 비슷했다. 유럽의 제안과 대 중동 프로젝트의 차이점은 단 하나였다. 유럽의 제안은 민주화 프로세스를 지역 관계 해결과 연관지었다. 그러나 아랍 국가의 내부적 변화에 계속해서 중점을 둬 따라 제안에서 이와 같은 연관성이 명확히 활용되지는 않았다.

2004년 6월 유럽과 미국의 프로젝트는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행되었다. 2004년 6월 미국에서 G8 회담이 열렸고, 더블린에서는 유럽-미국 회담, 이스탄불에서는 NATO 회담이 열렸다. 아랍 개혁의 내재화는 2004년 6월 미국에서 열린 G8 회담에서 발표된 문서를 통해 가장 중요하게 발현됐다. 해당 회담에서는 미국의 대 중동 프로젝트와 거의 유사한 내용의 중요한 문서 세건이 발표되었다. 이는 G8 국가와 대 아랍 국가 간 의사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해 대 아랍 국가들이 미국의 프로젝트에 명시된 과제를 이행하고 이행에 실패할 경우 이들의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했다. 각 국가에게 국내 개혁과 관련하여 특정 역할이 주어졌다. 예컨대 한국에게는 이집트, 요르단, 팔레스타인의 여성 권한부여에 관한 책임이 주어졌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서구 기관들은 의제를 설정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컨소시엄은 의제, 문제, 메커니즘을 규정했으며, 아랍 지역이 이행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했다. 아랍-이스라엘 갈등은 서구의 의제에서 벗어난 사안으로 간주되었으며, 서구의 의제가 모두 해결된 뒤 해당 갈등을 해결하자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아랍 민주화운동이 해당 프로젝트의 약점을 드러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민주화가 국제적 압력에 의해 촉진될 수 있

다는 가정에 기반했다. 2004년에서 2010년까지 아랍 국가의 민주주의는 별다른 발전을 보이지 않았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오히려 권위주의 정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아랍 민주화운동은 민주화가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자발적 프로세스라는 것을 입증했다. 아랍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 컨소시엄은 튀니지와 이집트의 혁명으로 종식되었다.

아랍 민주화운동은 전세계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랍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사실이다. 2004년에 조지 부시가 발표한 미국 민주화 프로젝트는 곧 보류되었고, 2006년에 자유 선거로 이슬람주의자가 권력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지만, 미국은 아랍 독재정권이 힘을 다할 때까지 독재정권을 지지했다. 이는 독재정권이 아랍에서의 미국의 이해, 특히 석유, 이스라엘, 테러 근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미국의 이해에 부합했기 때문이었다. 독재정권이 붕괴함에 따라 미국은 아랍 정책을 재조정해야 할 상황에 처했으며, 특히 민주주의와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하여 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2011년 4월 의회 증언을 통해 릭 넬슨(Rick Nelson)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는 현재 보기 드문 역사적 순간이자 전략적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민중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의 이해와 일치하는 때가 도래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알 카에다(Al Qaeda)와 다른 테러 단체를 제지할 최선책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안정적이고 자유 사회가 번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말하기는 쉬우나 실천하기는 어렵다.¹⁰⁾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구조적 한계가 있

10) Rick Nelson, "Unrest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Ramifications for US Homeland security"(http://csis.org/files/ts110406_nelson.pdf).

음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2011년 6월 미 상원에서 네타냐후(Netanyahu) 총리가 장장 48분간 한 강경한 연설이 상원 의원 29명의 기립 박수를 받았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한 미국 정치 분석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은 아랍에서 갖가지 비극적 사건을 겪었다. 수십 년간 미국은 아랍의 독재정권을 지원하고 자금을 지원했으며, 민주화운동이 미국의 이해를 위협할 경우 이의 초기 발생 기반을 약화시키면서 역사의 잘못된 편을 들어 왔다. 따라서 서구 ‘간섭’에 대한 비판에는 일리가 있다. 미국과 유럽이 아랍에 개입할 때마다 잘못된 개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개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랍에 올바르게 개입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아랍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고, 아랍 민중과 이들의 민주적 열망에 부합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미국 정책은 이와 거리가 멀었다.¹¹⁾

미국의 무조건적 이스라엘 지지는 미국과 새로운 아랍 정권 간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새로운 아랍 정권은 구 정권보다 유권자의 필요에 더욱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와 같은 가능성과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에서 미국의 철수가 임박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국가들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할 때 아랍에서 미국의 패권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새로운 정권을 굴복시키기 위해 1967년의 시나리오를 재현하는 또 다른 중동-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만 패권을 되찾을 수 있다. 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 아랍의 봄(Arab Spring)이 탄력을 잃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 아랍에서 미국의 패권이 축소

11) Shadi Hamid, "The struggle for Middle East Democracy"(<http://www.aucegypt.edu/gapp/cairoreview/Pages/articleDetails.aspx?aid=20>).

되면 러시아와 중국 등 다른 세력이 미국의 손실분을 차지하기 위해 아랍에 뛰어들 것이다.

5. 한국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서울 개발 컨센서스(The Seoul Development Consensus)

한국은 석유 수입, 무역, 투자 분야에서 아랍에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해는 아랍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필요로 한다. 아랍의 민주주의가 한국의 이해를 유지시키는 동시에 아랍 민주화운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명의 분석가가 아랍에 대한 한국의 이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아랍의 석유 생산량은 세계 석유 생산량의 3분의 1을 약간 넘으며, 아랍에서 석유 가격을 조금만 인상해도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석유 가격이 10% 상승하면 중국, 일본, 한국의 GDP가 0.2%에서 0.6% 감소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의 경제성장은 이미 아랍을 휩쓴 민주화 물결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원유 가격은 배럴 당 90달러에서 11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고 아랍의 일부 신흥시장의 경제성장은 둔화되거나 중단됐다. 중국의 순 석유 수입액 중 약 50%가 아랍에서 공급되며, 국내 석유 생산량이 전무한 한국은 석유 수입량의 약 4분의 3을 아랍에 의존한다. 일본의 아랍 의존도도 한국과 유사하며, 양국의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에 이른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대 한국 수출량은 300%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한국의 대미 수출액의 약 3분의 2에

맞먹는 수치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에 속한다. 한국은 또한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며 귀중한 사업관리 지식을 축적했다. 2009년에 한국은 해외 건설 수주액 491억 달러를 기록했다. 13억 달러를 수주한 인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한국 해외 수주 건설사업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운영된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리비아, 이란, 쿠웨이트로부터 각각 159억 달러, 72억 달러, 37억 달러, 31억 달러, 25억 달러, 16억 달러 규모의 건설사업을 수주했다. 한국이 아랍에서 완공한 사업으로는 아랍에미리트 소재의 세계 최대 담수화 플랜트인 후자이라 담수화 플랜트(Fujairah Desalination Plant), 아랍에미리트 소재의 3.1억 달러 규모의 건설사업 부르즈 칼리파(Burj Khalifa) 등이 있다.¹²⁾

이들은 또한 한국이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랍 민주화운동의 촉진에도 이해를 갖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 주장을 통해 이와 같은 결론을 밝혔다.

이 사업들은 모두 고위험 고수익 사업이었다. 갑작스런 정권 변화 가능성과 정치적 불안정성은 늘 위협이 된다. 또한 적절한 제도의 부재로 인해 부패가 만연하고 투명성이 부족해 진출 기업에게 “비공식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자스민 혁명(Jasmine Revolution)을 통해 마침내 민주주의적 변화가 일어난 국가들에서는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사회가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의 기반이

12) Tony Stangarone & Greg Scarlatoiu, “After the Arab Spring: A Role for Northeast Asia”(http://www.globalasia.org/V6N2_Summer_2011/Troy_Stangarone&Greg_Scarlatoiu.html).

될 가능성이 높다.¹³⁾

그러나 아랍 민주화운동에 대한 한국의 정책에는 부족한 것이 많았다. 아랍 국가의 혁명적 변화에 대한 언급도, 이집트와 튀니지에서의 시위자 대량학살에 대한 비난도, 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지지의 표출도 없었다. 한국 외교통상부가 주안점을 둔 것은 오직 리비아에 주재한 한국 근로자들을 구출하는 것이었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2011년 2월 28일 정권 교체가 완료된 뒤 한국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제적 이해를 우선시해 아랍을 휩쓸고 있는 민주화운동에 관해 의견을 표출하지 않고 있음을 비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알고 싶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정부가 이집트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현재 및 향후 이집트의 혼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이집트의 안정화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계속해서 예의 주시할 것이다.(<http://www.mofat.go.kr/english/press/briefing/index.jsp>)

다수의 외국 세력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아랍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놀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랍 지역에 대한 한국의 이해

13) Tony Stangarone & Greg Scarlatoiu, "After the Arab Spring: A Role for Northeast Asia"(http://www.globalasia.org/V6N2_Summer_2011/Troy_Stangarone&Greg_Scarlatoiu.html).

를 감안할 때 한국은 아랍지역의 민주주의 이행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는 2004년 6월 G8 정상회담 중 조직됐으나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국제 민주주의 컨소시엄으로부터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작업이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민간 사회 기관의 역할에 대한 강조도 잘못된 것이었다. 해당 기관에 지원된 보조금이 기관에게만 이득이 됨에 따라 아랍 사회에 새로운 형태의 부패가 생겨나게 되었다. 권위주의 통치자에 대한 모든 지원과 민주주의 진흥을 구실로 한 아랍 국가 침략은 사실상 민주화 프로세스를 지연시켰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 진흥은 내부적 과업이며, 아랍 국민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을 포함한 외부 세력은 내부적 프로세스를 촉진할 외부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외부적 환경이란 아랍-이스라엘 분쟁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스라엘을 보통의 국가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결책은 새로운 아랍 정권들이 높은 군사지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줄 것이며, 이를 통해 절약한 비용은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외부적 환경은 한국이 아랍의 새로운 민주정권과 기술적 협력 프로그램을 구축해 시장을 통제하는 대신 기술을 이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은 학력이 높은 이집트와 튀니지의 청년층에게 성장과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것이며, 이는 곧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채무 면제, 자유무역, 외국인투자 등의 기타 전략도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공고히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동맹 관계에 있는 세계 금융기관들과 함께 아랍 민주화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 금융기관들의 고전적인 구조조정 경제전략을 바꾸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아랍 국가들의 불만의 주된 원인이었다. 이와 같은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대규모 빈곤이 야기됐으며, 소수의 현지 및 외국 금융기관에 부가 집중됐다.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의 쥘릭(Zoellick) 총재가 2011년 4월 6일 성명을 통해 간결하게 밝

했듯 현재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다른 발전을 이행하는 것 (Do Development Differently through a New Social Contract)”이다.¹⁴⁾ G20 국가의 하나로서 한국은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G20 국가들에게 관련 노력을 이행할 것을 설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해당 노력은 ‘서울 개발 컨센서스’로 명명됐다. G20 회담에서 개도국에게 광범위한 경제 및 발전 현안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안이 논의됐다.¹⁵⁾ 한국은 또한 G20에서의 활동을 통해 아랍의 개발 및 사업과 관련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릴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은 G8 회원국의 동맹국이다.

2011년 5월 프랑스에서 열린 G8 회담에서 G8 국가들은 총 20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이집트와 튀니지에 배정키로 했다. 과거에 이와 같은 약속은 발표된 후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팔레스타인과 관련한 다수의 원조국 회의에서 이와 같은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아랍 민주화운동을 특정 조건과 관련된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오래된 관념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화운동은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과 외국의 전제조건과 지시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자신들의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로부터 시작됐다. 한국은 또한 민주주의적 변화를 겪고 있는 아랍 국가의 제품 수입에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특혜적 무역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도 있다. 이는 해당 국가들의 경제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계 및 시민사회 수준에서 아랍 국가와의 더 많은 대화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이 한국 외교통상부가 한국-중동포

14) Robert Zoellick,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 New Social Contract for Development”(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NEWS/0,,contentMDK:22880264~pagePK:34370~piPK:42770~theSitePK:4607,00.html).

15)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경제성장 집중,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민간부문의 참여 등 6개 원칙과,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무역, 민간투자 및 일자리 창출, 식량안보, 성장복원력, 금융소의 계층 포용, 국내재원 동원, 개발지식 공유의 9개 핵심분야를 선정하였다.

럼(Korea-Middle East Forum)을 정례화하고 이를 한국-아랍포럼(Korea-Arab Forum)으로 바꿔야 할 적기라고 본다. 이와 같은 변화는 명목적인 변화뿐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아랍 국가와의 관계를 분리하겠다는 한국의 입장 변화를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한국-중동포럼의 설립 근거는 이스라엘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이스라엘은 끝내 참여하지 않았고 아랍 민주화운동을 감안할 때 향후 이스라엘의 참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6. 결론

아랍 민주화운동은 아랍의 정세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왔다. 권위주의 정권은 퇴각하거나 향후 몇 개월 또는 몇 년 내에 물러날 것이다. 서구 세력은 늘 민주화를 옹호했으나 아랍의 민주화 물결만은 지지하지 않았고, 튀니지와 같은 일부 사례에서는 아랍의 민주화운동에 반대하기까지 했다. 한국은 선의의 무시 접근법을 취했고, 정치적 격변을 겪는 아랍 국가에서 자국 근로자를 구출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 민중은 부패한 지배계층을 꺾고 민주적 변화를 실현해낼 수 있었다.

향후 아랍에서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더 많이 반영될 것이다. 정치와 이의 복잡성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이슬람주의자의 영향이 더 커질 것이다. 이들은 시행착오를 범하겠지만, 이와 같은 오류는 정치 프로세스에서 대중의 철저한 검토에 의해 시정될 것이다. 아랍의 민주정권 수립은 쪽뻗은 직선이 아닌 지그재그 식의 여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반응성과 투명성을 갖춘 정권이 수립될 것이다. 지대 국가의 압력으로 인해 아랍의 왕실들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겪지 않겠지만, 결국 아랍의 새로운 현실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존 지배계층과 아랍 민주화가 최선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외국 세력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해당 외국 세력들은 아랍의 민주주의 도입을 위해 수많은 사업을 제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가 더 용이했던 독재정권을 선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아랍의 민주적 변화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포르투갈, 러시아, 동유럽 국가에서의 민주적 변화 역사를 살펴볼 때 이는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선의의 무시 접근법을 추구하는 대신 아랍의 봄 발생 몇 주 전인 2010년 11월 발표된 '서울 민주화 컨센서스'와 2011년 5월 이집트와 튀니지를 지원하기 위해 발표된 G8 컨센서스(G-8 Consensus)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선의의 무시 접근법은 아랍에서의 한국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에 대해 아랍이 경험한 것은 이와 같은 약속이 빠르게 잊혀지거나 심지어 아랍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아랍 경제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모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아랍에 대한 정치적 접근법은 냉철하게 재평가되어야 하며, 미국-이스라엘 관점이 아닌 한국-아랍 관점으로 아랍을 보아야 할 것이다. ~~아랍~~

참고문헌

- Ajami, Fouad. 1978. "The End of Pan-Arabism." *Foreign Affairs*. 57. 355-373.
- Abdel-Nour, Nagy. 2011. "The protest movements in Tunisia and the birth of the second wave of political liberation." *Al-Mostakbal Al-Arabi* May 2011. 31-147.
- Douh, Khaled Abou. "The 25 of January Revolution in Egypt, an attempt at a sociological understanding." *Al-Mostakbal Al-Arabi* May 2011. 113-130.

- Engdahl, William. "Egypt's revolution: Creative destruction for a "Greater Middle East?" (<http://www.globalresearch.ca/index.php?context=va&aid=23131>).
- Hafez, Ziad. "The January Revolution in Egypt, The questions of the present and the future." *Al-Mostkbal Al-Arabi (Beiru)* March 2011. 86-95.
- Hamayel, Abdaljawad. "The resurgence of Palestine" (<http://www.maannews.net/eng/ViewDetails.aspx?ID=369700>).
- Hamid, Shadi. "The struggle for Middle East Democracy" (<http://www.aucegypt.edu/gapp/cairoreview/Pages/articleDetails.aspx?aid=20>).
- Hass, Amira. "Egypt proved to Palestinians that revolution has a point" (<http://www.haaretz.com/print-edition/features/egypt-proved-to-palestinians-that-revolution-has-a-point-1.350749>).
- Heilbrunn, Jacob. 2011. "Israel and the Arab Revolutions." *The National Interest* (<http://nationalinterest.org/blog/jacob-heilbrunn/israel-the-arab-revolutions-4872>).
- Moursi, Mustafa. 2011. "Arab revolutions and the Arab system and the conflict over regional roles." *Shu'un Arabia, (Cairo)* 147. 16-31
- Muasher, Marwan, & Javier Solana. "Push ahead now for a solution in Palestine" (<http://www.ft.com/cms/s/0/5f4c4c68-4a87-11e0-82ab-00144feab49a.html>).
- Muhraeb, Mahmud. "Israel and the Egyptian revolution" (<http://www.25yanayer.net/?p=9835>).
- Murphy, Richard. "New Chapter in the Middle East" (<http://www.cfr.org/middle-east/new-chapter-middle-east/p24276>).
- Nelson, Rick. "Unrest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Ramifications for US Homeland security" (http://csis.org/files/ts110406_nelson.pdf).
- Ottaway, Marina, & Amr Hamzawy. 2011. "Protest Movements and Political Change in the Arab World."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Policy Outlook Paper.

Shehata, Dina, & Mariam Wahid. "The engines of change in the Arab world."

Al-Siyassa Al-Dawliya, (Cairo) 184. 10-17.

Zoellick, Robert.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 New Social Contract for Development"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NEWS/0,,contentMDK:22880264-pagePK:34370-piPK:42770-theSitePK:4607,00.html>).

투고: 2011.11.11 심사: 2011.11.15 확정: 2011.11.25
